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도철 베드로 916-690-6555
 연령회장: 최중구 안토니오 916-747-8431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지혜서 1:13-15;2:23-24	제2독서	코린도 2서 8:7,9,13-15	복음	마르코 5:21-43
--------	------	------------------------	------	-----------------------	----	----------------

착한 목자이신 교황님

오늘은 ‘교황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 대한 각별한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 사도에게 ‘당신의 양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타 종교를 포용하는 말형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 하면서,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는 일과 가난한 이들과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에도 교회는 복음 말씀과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서는 질병과 궁핍,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무기력한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12년 동안 ‘하혈’이라는 고질병 때문에 가산을 탕진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한 여인, 오늘날로 치면 ‘기초 생활 수급자’에 해당되는 여인에게 자비와 사랑을 보이십니다.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을 뿐 아니라 건강까지 회복시키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되돌리셨습니다. 또한 회당장의 열두 살 된 딸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당신의 권능으로 그녀를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무기력함과 비참함으로부터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탈리타 쿴! -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마르 5,41 참조)

인간의 비참한 상황에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은 치유와 해방과 구원을 주고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오히려 인간의 그 비참한 처지와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과연 오늘 2독서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처럼 **“주님께서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가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2코린 8,9)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세상에 전하고 드러내도록 구원의 표지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고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세상에 투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웃의 궁핍함을 채워주기 위한 나눔의 삶을 계속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에 불의가 만연하다면 그것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일에도 투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잘 보존하면서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는 소명 역시 교회가 선택해야 할 명료한 방향성입니다.

오늘 ‘교황주일’을 맞아, 특별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잘 드러나려면 우리 교회가 선봉이 되어야 하는데, 그 최선봉의 자리에 바로 교황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금 참으로 ‘착한 목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한층 깊은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독려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통해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독촉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훌륭한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십니다. 오늘 교황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표징을 드러내는 소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 자	전 레 력	미사시간	우리들의 정성(지난주)	
7월2일(화)	연중 제13주간 화요일	오후 7시30분	주일헌금	\$ 1,285.00
			교무금	\$ 580.00
7월3일(수)	성 토마스 사도 축일	오전 8시	성물방	\$ 0.00
			자선비	\$ 15.00
7월4일(목)	연중 제13주간 목요일	오후 7시30분	도네이션	\$ 100.00
			성소후원금	\$ 15.00
7월5일(금)	연중 제13주간 금요일	오전 10시		
7월6일(토)	연중 제13주간 토요일	오후 7시30분	합 계	\$ 1,995.00
7월7일(주일)	연중 제14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학생: 8명 성인: 155명
교무금 봉헌자	김두황(6-7)지동순(5-6)권영일.김주동(6)운영자(7)			

당신의 세례명은 무엇입니까?

2020년6월 서울대교구에서 신자들의 세례명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세례명은 ‘마리아’로 8만 8945명이었고요. 그다음 ‘요셉’으로 6만 813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위는 무엇이였을까요? ‘베드로’였습니다. ‘바오로’가 4위를 차지했구요.

‘세례자 요한’과 ‘사도요한’을 합쳐 ‘요한’이 5위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본당엔 어떤 세례명이 가장 많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세례명이라는 말은 신자 생활에서는 별도로 쓰지 않고 주로 본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곧 그리스도교 신자의 본 이름은 세속 이름이 아니고 세례명이 진짜 이름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교회 안에서는 물론 신자들 상호간에는 누구나 세속 이름보다 본명을 불렀습니다.

‘세례명’을 한국 가톨릭대사전에선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신자가 받는 이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세례에서 하느님의 이름은 인간을 성화시키며,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부르는 자신의 이름을 세례 때 받는다. 그것은 어떤 성인의 이름, 곧 자기의 주님께 모범적으로 충성을 다 바친 한 제자의 이름일 수 있다(2156항).”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명의 시작은 3세기 중엽, 태어난 아이에게 세례를 줄 때 성서에 나오는 이름이나 순교자나 성인으로 추앙되고 있는 인물의 이름을 부여하기 시작하면서였는데요. 4세기 이후에 그리스도교가 점차 국교로 자리

자리 잡게 되자 순교자나 성인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신앙과 교회의 의미를 지닌 이름들이 신자들의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아타나시오(Athanasius, 불멸), 레나토(Renatus, 세례를 통한 재생), 나탈리오(Natalio, 성탄), 데오둘로(Theodulus, 하느님의 종)와 같은 교회의 이상을 의미하는 이름들이나, 아가페(Agape, 사랑), 피데스(Fides, 신앙), 카리타스(Caritas, 사랑) 등과 같이 그리스도교의 덕을 뜻하는 이름들도 자주 불렀습니다.

13세기에 들어서야 교회법에서 세례명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여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역사적 기원에서부터 보면 세례명을 부여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오다가 법규로 의무화되었고, 세례명을 짓는 데에는 성서의 인물, 순교자나 성인의 이름을 선택하거나, 그리스도교적 의미(신앙적, 교리적 의미)가 있는 것을 부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성인의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는데요. 그 이유로서는 영세자가 세례명 성인의 성덕을 본받고, 후보 성인으로 모시고 영적으로 친교의 생활을 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세례 때에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일생을 통해 특별히 그 이름의 성인을 후보성인으로 공경하여, 그 성인의 보호를 받으며,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데에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의 미사지향 (미사신청: 전례부장 916-990-6531/사무장 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서정선 엘리사벳 영혼	서국은 바오로	생	본당 신부님, 부제님 영육건강	표정호 다니엘
연	김초지 마리아 영혼	송명자 아가다	생	조유원 요셉 영육건강	조윤희 밀지다
연	이규형 제노비아 영혼	이호영 베드로	생	정세진 아델라 영육건강	오미경 마리아
연	더글라스 맥 윌리엄 영혼	김순녀 도미질라	생	김순애 켈마 영육건강	차영미 카타리나
연	황준영 라파엘 영혼	최금주 요안나	생	전우성 베드로 영육건강	전병욱 골롬바
연	오영애 바울라 영혼	오소정 오수진	생	박병수 벤자민 영육건강	이의웅 베드로
연	김승진 시몬 영혼	김흑자 안젤라			

◎공동체 소식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1. 성모신심미사 및 성시간

일시: 6일(토) 오전10시30분. 성당
(일반 신자분들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사후 성당에서 요셉회. 안나회가 있습니다.

2. 성령찬미미사 및 성시간

일시: 11일(목) 저녁8시. 성당
저녁7시(찬미) 저녁7시30분(묵주기도)
저녁8시(미사, 성시간 및 안수예절)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양업 토마스 공동체 (리노공소) 미사

일시: 7일(주일) 성당에서 오후 1시 출발
최원순 데레사 자매님택에서 구역미사로
집전합니다.
리노공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4. 본당 구역장 회의

일시: 7일(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각 구역장께서는 모두 참석 바랍니다.

5. 본당 울뜨레야

일시: 7일(주일) 교중미사후 성가대방
본당 꾸르실리스따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 7월 구역미사 (6구역)

일시: 12일(금) 오후7시30분
장소: 임원호 시몬, 임혜숙 그라시아 (자택)

7. 7월 구역모임

7구역: 19일(금) 오후7시 성당 친교실
8구역: 21일(주일) 교중미사후 요한방
9구역: 21일(주일) 교중미사후 친교실

8. 단체활동

성모회: 6/30(주일) 교중미사후 뷔페식당(예정)
사회복지부: 6일(토) 오후3시 식재료준비/회의
7일(주일) 오전8시 음식봉사(홍리스)

9. 교구 2차헌금

일시: 7일(주일) 모든미사
목적: Peter's Pence Collection
(Collection for the Holy Father)

10. 서중부 여성 제15차 꾸르실료 3박4일 참가

기간: 8/1(목)~8/4(주일) 3박4일
장소: St.Clare Retreat (2381 Laurel Glen Rd)
참가자: 박희현 세실리아, 김진영 마르타
김선영 플로라, 윤영자 마리아 (총4명)
이상 순종 사랑의 마음으로 은총의 시간 되시기
바라며,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11. 제28차 북가주 성령대회

일시: 8/10일(토) 오전8:30~오후6:00
장소: 새크라멘토 정혜 엘리사벳
강사: 박효철 베네딕도 신부님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회장
주최: 북가주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지도신부:이종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참가비: \$25 (Check 발행시: KSCNC) 점심.저녁제공
신청/문의: 김은영 폴리나 (본당 성령기도회 회장)

12. 감사합니다

새크라멘토교구 종신부제 10주년 축하모임 행사
에 자원봉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3. 감사합니다

도네이션: \$100 (김상돈 도미닉 부제님)

▣ 스마일마켓쿠폰: 적극적인 이용 부탁드립니다
(쿠폰이용금액의 15%를 도네이션 받습니다)

<< 주일학교 >>

주일학교 학생들은 방학기간 중에도 부모님과
함께 미사에 참여 바랍니다.

화답송	 <p>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 나이다</p>				
	전례봉사	연중 제13주일 (6/30)	연중 제14주일 (7/7)	연중 제15주일 (7/14)	연중 제16주일 (7/21)
	미사해설	정미정 / 김진영	박문교 / 이해련	오민정 / 최금주	오민정 / 최금주
	복사	김승제 김영준 / 김규철	김규철 / 장현철	장현철 김병수 / 윤지현	김병수 / 권오승
	헌금위원	셋별Pr.	천상의모후Pr.	셋별Pr.	천상의모후Pr.

(광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주보제작: 사무장 박프란치스코 S (909-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353-1112
samuraisushisac.com

1.2.3 Auto Body 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

Angel Garden Care Home

9873 Traveler Court Elk Grove, CA 95624
조영숙(도미니카) 530-886-9529
ycho11281128@gmail.com

- ▶ 케어홈 운영 상담 가능
- ▶ 구인광고

- 40세이상 여성으로 가사경험이 풍부하신 분
플타임. 파트타임 가능/ 시간당 \$20 / IRA가능(희망자)



#1 KOREAN CHICKEN
모임/생일 Catering 주문 환영
뽕치킨
916-840-5535
조현화(헬레나)916-728-8585
KP market, #411

서은미 부동산

ONE
REALTY ONE GROUP
COMPLETE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

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CATHOLIC FUNERAL CEMETERY SERVICES (새크라멘토교구 직영)

2110 Broadway
Sacramento, CA95818
한국세션 담당 Beda
916-840-2156
279-799-8572

장 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916-342-7072

CHEZ JULIA HANDMADE SOAP & CANDLES

*** 쉐 줄리아 공방 ***
수제 비누, 샴푸바, 캔들, 디퓨저,
One day Class, Thank you gifts
[/chezjulia_banheemom](https://www.instagram.com/chezjulia_banheemom)
박지은 (아델라)
626-617-2215



스마일마켓 쿠폰판매

※ 판매금액의 15% , 본당 재정 수입
여성부장 최재진 모니카
916-798-6577
성물방 이나숙 데레사
916-201-5630

양업토마스공동체 (리노공소) 후원

고추장. 된장. 도토리 국수. 참기름. 고춧가루 판매
리노공소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공소부장(916-591-0179)